



김병태 부회장 징역 6개월(집유 1년)

춘천지법 속초지원 1심 선고... 6.2지선 앞두고 스키장사업 원활 위해 불법 정치자금 제공혐의

제공받은 쪽 황·이씨는 무죄...검찰 항소 관심

지난해 실시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알프스스키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황종국 당시 군수 후보에게 후원회 기부금액을 초과 기부하는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모리 조트 김병태 부회장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또 김씨와 사전에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황종국 군수의 아들 황모씨와 6.2지방선거 당시 황 후보의 선거사무장 겸 후원회 회장을 맡았던 이모씨 등 2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은래)는 지난 22일 오전 9시30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김병태 피고인은 하나의 후원회에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기고 타인 명의로 4,5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켰고, 자신의 사업 추진의 원활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황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김씨가 타인 명의로 분산 후원할 것을 황씨와 이씨가 사전에 알았다거나, 황씨와 이씨

가 김씨와 서로 공모 내지 모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열린 걸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황씨와 이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대검찰청의 항소기준에 따르면 일반 사건은 선고형량이 검찰 구형량의 3분의 1 이하거나, 중요 사건의 경우 절반에 미치지 못했을 때 항소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건을 맡은 속초지청 정일권 검사는 지난 22일 “항소할지 안할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7일간의 기간이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설화(雪花)

진달래는 철쭉보다 먼저 개화하고 먹을 수 있어서 참꽃이라고도 부른다. 그 명소는 평안북도 영변 약산 동대(東臺)이다. 봄이 되면 남북강산에 피어나 사람들을 사향회구(思鄉懷舊)에 잠기게 한다. 거진등대에서. 장공순 시민기자



향토장학금 1억2천만원 전달

재단법인 고성향토장학회(이사장 황종국)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2011년도 고성향토장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고교생 49명, 2~3년제 대학생 21명, 4년제대학생 64명, 특별장학생 4명, 특기생 6명, 읍면장 추천 1명 등 총 145명에게 1억2천30만원이 전달됐다. 박승근 기자

제30회 고성군축구연합회장기 대회



- ◇일 시 : 2011년 4월2~3일
- ◇장 소 : 거진공설운동장 · 현내공설운동장
- ◇참가팀 : 12개 클럽, 3개 부문(30대, 40대, 50대)
- ◇시 상 - 우승 상금 30만원, 트로피
- 준우승 상금 20만원, 트로피
- 공동 3위 상금 10만원, 트로피

국민생활체육 고성군축구연합회